

드러머 아니카 닐즈의 잇단음표 활용 분석

한호석¹, 조태선^{2*}

¹청주 KMI실용음악학원 강사, ²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Analysis of the use of tuplet by drummer Anika Nilles

Ho-Seok Han¹, Tae-Seon Cho^{2*}

¹Lecturer, Cheongju KMI Music academy, ²Professor,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최근의 대중음악은 청중들이 접하기 쉽고, 간단하며 반복적인 스타일로 만들어진다. 독일의 드러머 아니카 닐즈는 기존 음악 스타일과 다른, 음악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다섯 잇단음표, 일곱 잇단음표, 아홉 잇단음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음악과 연주를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카 닐즈가 활용한 잇단음표들의 활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도출해 앞으로의 음악에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잇단음표를 크게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각각 활용된 기법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음악에서 주로 쓰이지 않는 잇단음표들을 활용한 아니카 닐즈의 연주 기법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아니카 닐즈는 잇단음표의 특징을 돋보이게 표현하고 그에 따라 연주했다.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그것들을 활용한 그녀의 연주는 충분한 연구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아니카 닐즈, 잇단음표, 다섯 잇단음표, 일곱 잇단음표, 아홉 잇단음표

Abstract Recent popular music is made in an easy, simple, and repetitive style for the audience. German drummer Anika Nilles, has creatively expressed her music and performance using Quintuplet, Septuplet, and Nonuplet that are not often used in music, different from traditional music sty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e of tuplet used by Anika Nilles and derive the effect accordingly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n future music. The research method analyzes the techniques used by dividing the consecutive notes into three main categories: five, seven, and nine. This study classified and analyzed her performance techniques using tuplet that are not usually used in music and presented various applications. Anika Nilles expressed the characteristics of tuplet and played them accordingly, and the fact that there are various methods of application showed that her performance technique using them was of sufficient research value.

Key Words : Anika Nilles, Tuplet , Quintuplet, Septuplet, Nonuplet

*This thesis is a summary of the 2019 Sangmyung Graduate School's master's thesis.

*Corresponding Author : Tae-Seon, Cho(entheos@chungwoon.ac.kr)

Received April 15, 2021

Revised May 14, 2021

Accepted July 20, 2021

Published July 28, 2021

1. 서론

잇단음표란 음악에서 어떤 음표의 시가(時價)를 그 박자 본래의 분할법에 의하지 않고 등분할(等分割)한 일련의 음표를 뜻한다[1]. 한 박을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32분음표 등 각 박을 반으로 균등하게 나뉘지는 음악을 스트레이트(straight) 리듬 이라고 하며 셋잇단음표, 여섯 잇단음표, 아홉 잇단음표 등 삼등분(三等分)하여 나뉘지는 음악을 트리플(triple)리듬, 또는 셔플(shuffle)리듬 이라고 한다. 스트레이트 리듬으로 만들어진 음악에서 잇단음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악에 급격한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잇단음표들에 비해 변화가 적은 셋잇단음표와 여섯 잇단음표를 자주 활용한다[2].

본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왜 이만큼 희소가치가 있는 잇단음표를 음악에 자주 활용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부터 시작 되었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들이 나타나며 왜 활용이 되지 않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아니카 닐즈이다.

아니카 닐즈는 음악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를 연주에 활용해 곡을 실험적이고 돋보이게 연주했다.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를 활용한 대중음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음악적으로 이질적인 느낌이 연출되어 잘못 활용하였을 때 음악에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역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음악적으로 알맞고 어울리게 활용한다면 지금의 대중음악 스타일보다 한층 더 수준 높고 진보적인 음악스타일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 방법은 잇단음표를 크게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각각 악보를 참고해 활용된 기법에 대해 분석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잇단음표들을 활용해 연주한 아니카 닐즈의 드럼 기법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도출한 내용을 통해 잇단음표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아니카 닐즈

아니카닐즈는 1983년 독일 태생으로 6세부터 드럼을 연주하였으며 만하임 팝 아카데미 음악원에 입학원에 입학하여 대중음악 및 비즈니스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던 중 2014년부터 유튜브에 연주 영상을 업로드하고 갑작스럽게 유명해졌다.



Fig. 1. Anika Nilles Profile Photo [3]

2.2 아니카 닐즈 앨범과 잇단음표 활용 유무

Table 1. Classification of Anika Nilles music album release and use of tuplet[5]

Album title	Quin.	Sep.	Non.
Anika Nilles (2014)	O	X	X
Chary life (2014)	X	X	X
Synergy (2015)	X	X	X
Mallay (Drum Less version) (2016)	X	X	X
Orange Leaves (Drum Less version) (2017)	X	X	X
Golden Sparks (2017)	X	O	X
Mister (Drum Less version) (2017)	X	X	X
Pikalar (2017)	O	O	O
Pikalar (Minus drums) (2017)	X	X	X
Those hills (2017)	O	X	X
Ndola (2017)	X	X	X
Spunky (2018)	X	X	X
Greenfield (Video Version) (2018)	X	X	X
The Walk (2019)	O	O	O
Wild Boy-2018 [Anika Nilles/Nevell](feat.Nevell) (2019)	X	X	X
Shine(2019)	X	X	X
For a Colorful Soul (feat.Nevell) (2020)	O	O	O

그때 당시까지의 음악에서 쉽게 시도하지 않았던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들을 활용한 연주는 같은 연주자나 음악을 듣는 청중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2014년 히트 라이크 어 걸 콘테스트 (hit like a girl contest)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2015, 2016년에는 드러미 어워드 (Drummie Awards)에서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유럽,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각지에서 공연과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4].

아니카 닐즈의 앨범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장의 앨범을 발매하였으며 싱글 앨범 15장, EP 앨범 2장, 정규 앨범 2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15장의 앨범 총 곡 수는 49곡이며, 드럼이 연주되어 있지 않은 마이너스 드럼 트랙을 제외한 곡수는 34곡이다. 또한, 이 중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를 활용한 총 곡 수는 14곡이다.

위의 Table 1은 아니카 닐즈의 전체 앨범의 분류와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를 활용한 기법의 유무를 볼 수 있는 표이다.

2.3 잇단음표 활용

2.3.1 다섯 잇단음표



Fig. 2. Example of Quintuplet

다섯 잇단음표란 삼등분 또는 사등분할 음표를 오등분한 것이다[6]. 리듬은 16분 음표 네 개의 음표와 여섯 잇단음표 여섯 개의 중간으로 나타나며 굉장히 불확실한 리듬을 가진다. 다섯 잇단음표는 16분음표 네 개의 리듬이나 여섯 잇단음표와 비슷하게 들리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잇단음표들에 비해 독립적인 느낌을 가지고 쓰인다. 그래서 아니카닐즈는 곡의 한 구간을 오로지 다섯 잇단음표로 만들어 연주하거나 특정 구간을 돋보이는 방법으로 구성했다.



Fig. 3. Example of Quintuplet used by Anika Nilles

Fig. 3부터 Fig. 4까지 아니카닐즈가 활용한 다섯 잇단음표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도출해낸다.

Fig. 3은 아니카 닐즈의 『Anika Nilles』 앨범 수록곡인 ‘Queenz’의 2~5마디 악보이다. 이 곡은 아니카닐즈의 전체 연주 곡들 중 다섯 잇단음표의 활용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고 부각되는 곡으로 곡의 약 60% 이상이 다섯 잇단음표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시작 부분부터의 연주가 스트레이트 리듬이 아닌 다섯 잇단음표를 활용한 연주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생소한 느낌으로 곡을 연출했다.

표시된 부분의 리듬은 다섯 잇단음표의 첫 음과 마지막 음에 연주를 반복함으로써 연주를 들으면 마치 여섯 잇단음표로 연주된 하프 타임 셔플(half time shuffle)의 리듬처럼 들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하프 타임 셔플의 리듬은 셋잇단음표나 여섯 잇단음표, 또는 아홉 잇단음표를 활용하여 연주하지만 Fig. 3에서는 다섯 잇단음표를 활용하여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을 연출해 연주한다. 또한, 마지막 5마디의 드럼 필인 부분 두 번째 박에서 다섯 잇단음표를 반으로 나누어 연주하는 것을 보아 기법의 응용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Example of Quintuplet used by Anika Nilles 2

Fig. 4는 Fig. 3와 같은 ‘Queenz’의 57~60마디 악보이다. Fig. 3에서는 하프 타임 셔플 리듬의 느낌을 연출해냈고 Fig. 4에서는 폴리리듬(Poly Rhythm)을 연출해냈다. 폴리리듬이란 성부에 의해 비트의 위치가 다른 것, 또는 그런 리듬이며 단순한 분박 혹은 잇단음표와는 다르고 두개 이상의 다른 잇단음표 리듬이 동시에 연주되는 것이다[7]. 일정하게 다섯 잇단음표로 연주되는 기본

리듬에 라이드 심벌을 표시된 것 같이 세 개씩 묶어 연주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의 연주는 곡의 기본적인 강세에 변화를 주어 마치 두 개의 곡을 동시에 듣는 느낌을 준다. 이 패턴에서의 강세는 세 개씩 연주되는 패턴 마지막 음에 강세를 넣어 폴리 리듬의 활용을 극대화 시켜주고 있다.

2.3.2 일곱 잇단음표



Fig. 5. Example of Septuplet

일곱 잇단음표는 삼등분 또는 사등분할 음표를 일곱 등분한 것이다[8]. 리듬은 여섯 잇단음표 여섯 개와 32분음표 여덟 개의 중간으로 나타나며 32분음표 여덟 개의 리듬으로 비슷하게 들리는 성질이 있다. 일곱 잇단음표부터는 그 성질과 함께 음표의 개수가 많아져 음악의 템포가 느려도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잇단음표들의 분석은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량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Fig. 6부터 Fig. 7까지 아니카닐즈가 활용한 일곱 잇단음표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도출해낸다.



Fig. 6. Example of Septuplet used by Anika Nilles

Fig. 6은 아니카 닐즈의 『Pikalar』 앨범 수록곡인 ‘Orange leaves’의 40~43마디 악보이다. 이 곡은 기본 리듬이 스트레이트 리듬이며 이 구간에만 일곱 잇단음표

로 연주되었다. 손과 발을 함께 혼합하여 연주하는 콤비네이션(combination)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스트레이트 리듬에서 이 기법을 활용하는 것보다 잇단음표에서 활용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더욱 높은 난이도를 나타낸다.

스트레이트 리듬이 기본 리듬으로 연주될 때 잇단음표를 혼합하여 쓰면 간단하고 단순한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역기능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일곱 잇단음표는 32분음표 여덟 개로 비슷하게 들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Fig. 4와 같은 연주를 해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곡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스트레이트 리듬으로 연주되는 것보다 잇단음표들의 활용으로 지루하지 않고 특징을 주어 곡에 변화를 준 음악이 기존 음악과 다르고 창의적인 음악으로 나타날 수 있다.



Fig. 7. Example of Septuplet used by Anika Nilles 2

Fig. 7은 아니카 닐즈의 『For a Colorful Soul (feat. Nevell)』 앨범 수록곡인 ‘Smooth7 [Bonus Track] (feat. Nevell)’의 5~8마디 악보이다. 이 곡은 80% 이상이 일곱 잇단음표를 활용한 기본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 32분음표 여덟 개의 스트레이트 리듬으로 들리는 성질을 극대화하여 연주한 곡으로써 일곱 잇단음표와 적절히 혼합하여 연주했다. 악보로 보고 분석하면 구간마다 활용한 리듬들이 보이지만 악보가 없는 상황에서 곡만 듣는다면 그 리듬을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다. 특히 잇단음표에 관한 연습과 연구가 없는 일반 청중들이나 연주자들이 듣는다면 더욱더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아니카 닐즈는 일곱 잇단음표를 활용해 다른 악기와 함께 어울리며 안정된 연주로 만들어냈다.

2.3.3 아홉 잇단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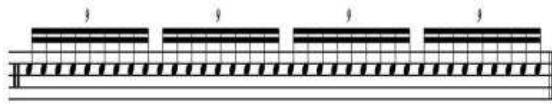


Fig. 8. Example of Nonuplet

아홉 잇단음표는 셋잇단음표를 다시 삼등분 한 것이며 본래 여덟, 또는 여섯 등분할것을 아홉 등분하는 경우가 많다[9]. 리듬은 32분음표 여덟 개와 열 잇단음표 열 개의 중간으로 나타나며 32분음표 여덟 개의 리듬으로 비슷하게 들리는 성질이 있다.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 모두 음악에서 자주 활용하지 않는 잇단음표들이다. 그중 다섯, 일곱 잇단음표는 음악의 기본 리듬에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아홉 잇단음표는 음악의 기본 리듬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섯, 일곱 잇단음표는 알맞게 나뉘지는 박의 개수나 스트레이트 리듬이 없다. 그러나 아홉 잇단음표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셋잇단음표를 기준으로 하여 연주되기 때문이다.

아홉 잇단음표를 나누는 방법은 아홉 잇단음표 아홉 개의 음표를 세 개씩 세 번 묶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묶어 세게 되면 셋 잇단음표가 된다. 반대로 셋 잇단음표 세 개를 하나당 세 개씩 나누게 되면 아홉 잇단음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아홉 잇단음표는 셋 잇단음표를 기준으로 한 트리플 리듬, 셔플 리듬에서 주로 연주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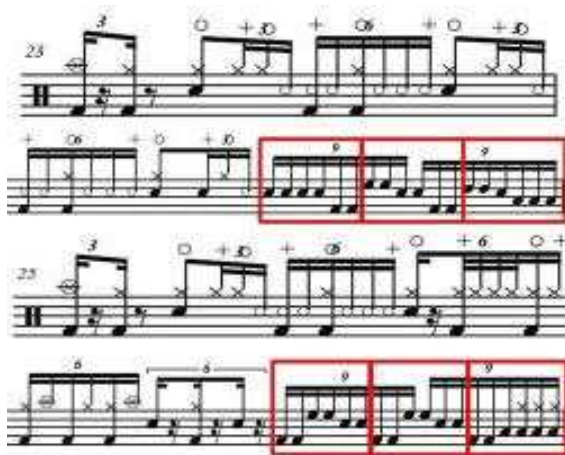


Fig. 9. Example of Nonuplet used by Anika Nilles

Fig. 9는 아니카닐즈의 『Pikalar』 앨범 수록곡인 ‘One ride one life’의 23~26마디 악보이다. 이 곡은 셋 잇단음표와 여섯 잇단음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프타임셔플

리듬의 곡이다. 24마디와 27마디의 아홉 잇단음표 리듬은 콤비네이션 기법과 그루핑(Grouping)을 활용했다[11].

그루핑이란 음표들을 임의의 개수대로 묶는 음표의 그룹을 뜻한다. 24, 27마디의 아홉 잇단음표 그루핑은 아홉 잇단음표 아홉 개로 한 박씩 두 번, 총 음표 열여덟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표시된 것처럼 그루핑을 나눠보게 되면 아홉 잇단음표 여섯 개로 두 박에 세 번 그루핑을 활용했다. 본래 음표들의 묶음은 일반적으로 첫 박에 강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루핑을 응용한 방법은 묶음의 강세를 바꿔 폴리리듬의 효과를 준다. 강세가 달라진 이 리듬은 2박 3연음에서 쓰이는 기법과도 연결된다[12]. 2박 3연음이란 두 박을 세 개로 나누어 연주하는 방법이다. 그루핑 한 개당 음표 여섯 개씩 세 개의 묶음이 나오므로 2박 3연음에서 나오는 기법으로도 볼 수 있다.

3. Discussion

아니카닐즈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표한 15개의 앨범의 곡 수는 총 49곡이다. 그중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를 활용한 곡 수는 총 14곡이다. 전체 곡을 분석해보았을 때 일곱, 아홉 잇단음표의 활용보다 다섯 잇단음표의 활용이 더 많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13]. 첫 번째, 곡의 빠르기로 볼 수 있다. 곡의 빠르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비례해 모든 연주법의 난이도가 상승한다. 잇단음표 또한 마찬가지이다. 드럼의 가장 기본 주법인 싱글스트로크를 사용하더라도 자주 활용하지 않는 잇단음표를 빠른 곡에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음표의 개수가 가장 적은 다섯 잇단음표를 자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다섯 잇단음표는 독립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활용을 하는데 제한이 되는 요소가 없다. 일곱 잇단음표는 32분음표 여덟 개로 들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활용을 해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아홉 잇단음표는 다섯 잇단음표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성질이 있지만 박의 개수가 하프타임 셔플, 트리플, 셔플 리듬에 알맞게 나뉘져 스트레이트 리듬에서 활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13].

잇단음표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음악과 잘 어우러지지 않을뿐더러 난이도가 어려워지며 복잡하고 변칙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음악적 분석이 함께 따라야 한다. 잇단음표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진보적이고 앞서나가는 새로운 음악의 형태로 재탄생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완벽히 음악과 잘 어우러질 때 잇단음표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15].

잇단음표를 주제로 한 다른 연구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로 음악용어를 설명하는데 쓰이거나 소재목으로 분량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잇단음표를 활용한 음악의 수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물론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청중들이 듣기 쉽게 단순한 패턴으로 가는 음악도 존재해야 하지만, 잇단음표와 같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요소를 활용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표현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음악들이 새로이 발표될 때 아티스트들과 청중,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 다음 세대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결론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는 아니카 닐즈가 활용하기 이전, 곡의 각 구간마다 변화하는 형태가 뚜렷한 오케스트라나 클래식 음악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그 또한 지속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 특정 부분을 짧게 돋보이는 효과로 쓰였다. 대중음악에서는 잇단음표보다 큰 범주인 혼합박자(Complex Meter) 또는 변박자(Odd Meter)를 활용하여 박자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연주자들도 잇단음표 대신 여러 박자들을 활용한 주법을 습득하였다. 하지만 아니카닐즈는 이러한 잇단음표들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녀만의 독창적인 연주 방법과 실험적인 접근은 기존의 쉽고 간단한 형태의 음악을 새롭게 변화시켰다[16].

본 논문에서는 아니카닐즈가 활용한 다섯 잇단음표, 일곱 잇단음표, 아홉 잇단음표를 분석하고 분류하여 그 효과를 도출해냈다.

다섯 잇단음표는 16분 음표 네 개의 리듬이나 여섯 잇단음표와 비슷하게 들리는 성질이 없다는 것과 다른 잇단음표들에 비해 독립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것, 그리고 알맞게 나뉘질 수 있는 박의 개수나 스트레이트 리듬이 없었다. 일곱 잇단음표 또한, 다섯 잇단음표와 동일하게 알맞게 나뉘질 수 없는 박의 개수나 스트레이트 리듬이 없었으며, 32분음표 여덟 개의 리듬으로 들리는 특징이 있었다. 아홉 잇단음표는 다섯 잇단음표와 같이 어떠한 음표로 들리는 성질은 없었다. 그리고 하프 타임 셔플, 트리플, 셔플 리듬에 주로 활용되며 알맞게 나뉘질 수 있는 박의 개수가 있었다.

잇단음표가 활용된 음악의 가장 큰 효과는 변칙적이며 복잡한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음악과 어울리지 않게 활용하면 다른 악기와의 소통이나 듣는 청중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음악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과 연구를 통해 음악에 어울리게 활용한다면 대중성과 희소성, 진보적인 음악적 요소 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 외 더 높은 수의 잇단음표들은 활용도가 높지 않아, 활용한 음악을 들으면 거부감이 들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단계를 거쳐야 음악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층 더 발전한다 생각한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발매된 잇단음표 음악을 듣게 되는 청중들, 연주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REFERENCES

- [1] H. S. Han. (2019). *Drum technique analysis using odd division metho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of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Department of Music Technology, Seoul.
- [2] *Doopidia*. Tuplet.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163&cid=40942&categoryId=32992>.
- [3] *Discogs*. Anika Nilles. <https://www.discogs.com/ko/artist/6242466-Anika-Nilles>
- [4] *Wikipedia*, Anika Nilles. https://en.wikipedia.org/wiki/Anika_Nilles
- [5] J. S. Kim & T. S. Cho. (2020). A Study on the Album "MonoCro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1(2), 205-211. DOI : 10.5762/KAIS.2020.21.2.205
- [6] H. J. Kim. (2020). The meaning of art revealed by The origin of the work of art and An outline of a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8), 123-129. DOI : 10.5762/KAIS.2020.21.8.123
- [7] B. N. Rae & S. K. Seob, (2020), A Study on the Realities of Sexual Violence and the Measure for Social Welfa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1(2), 251-258. DOI : 10.5762/KAIS.2020.21.2.251
- [8] Y. S. Choi & T. S. Cho. (2019). A Study on Vocal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 218-222. DOI : 10.5762/KAIS.2019.20.2.218
- [9] Samhomusic editorial department, Nonuplet.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0917&cid=50334&categoryId=50334>

- [10] H. S. Han. (2018). An Analysis of the Drum Techniques of Anika Nilles. *Popular Music Contents Society*, 2(2), 54-62.
- [11] J. I. Ju, (2021),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overt Narcissism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Mediated Effect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2(1), 237-250. DOI : 10.5762/KAIS.2021.22.1.237
- [12] J. H. Seo, (2021),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and curriculum management of colleges of applied music -with the focus on applied music departments based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2(2), 529-538. DOI : 10.5762/KAIS.2021.22.2.529
- [13] E. S. Lee & J. H. Ko,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Life Satisfaction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2(2), 587-592. DOI : 10.5762/KAIS.2021.22.2.587
- [14] B. N. Rae. (2020). A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Motives of Higher-Educated Adult Learn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12), 182-191. DOI : 10.5762/KAIS.2020.21.12.182
- [15] H. C. Kim & T. S. Cho. (2020). A Study on Employment Channels to Find A Way for Practical Music Students -About the Need and the Direction of Use of The Cert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2(1), 379-384. DOI : 10.5762/KAIS.2021.22.1.379
- [16] S. E. Jeong & T. S. Cho. (2020). A Study on the Electric Guitar -focusing on Fender Stratocast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1(5), 426-432. DOI : 10.5762/KAIS.2020.21.5.426

조 태 선(Tae-Seon, Cho)

[경력]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 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실용음악교육협회의 회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대중예술음합협회 회장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 관심분야 : 보컬, K-POP, 실용음악
- E-Mail : entheos@chungwoon.ac.kr

한 호 석(Ho-Seok, Han)

[경력]



- 2019년 2월 :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음악학석사
- 2019년 2월 : KMI실용음악학원 드럼 전임강사
- 2019년 8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강사
- 2014년 2월 ~ 현재 : 밴드 굿모닝키즈, 코롱코롱해적단 메인 드러머
- 관심분야 : 드럼, 실용음악
- E-Mail : hanhoseok@naver.com